

## 비과세되는 소득의 파악이 연말정산의 출발점이다

상담실 백종훈 차장

개인의 소득과 관련된 소득세는 특정기간에 발생한 다양한 사건에 대해 각 납세자의 개별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측정이나 세금계산을 위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, 효과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소득세의 과세체계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다.

연말정산은 한해의 근로소득에서부터 시작되므로, 자신의 과세소득을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. 과세소득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, 올해의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출발이다.

### 실비변상적인 급여

근로소득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회사에서 보전해주는 경우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.

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 중 대표적인 것은 일직이나 숙직을 하고 받는 수당 및 여비인데, 일직·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.

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 시내출장 등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. 그러나 반드시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어야만 하며, 회사차로 업무 수행을 하고 받은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이다.

선생님들은 연구보조비나 여가활동비로, 기자는 취재수당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올해부터는 인터넷 신문기자들도 월 20만원까지 활동비 수당을 비과세로 적용받는다.

경찰이나 특수부대 군인들이 받는 위험 및 근무 수당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구분돼 혜택을 받는다. 더욱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정해진 유니폼을 입어야 한다. 이때 이들이 받는 제복, 제모, 제화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.

##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무 수당

공장 등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액이 210만원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 이하인 근로자가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한 연장시간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한다.

하지만 일용 및 광산근로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세한다.

또한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(선장이 아닌 선원으로 항해사, 기관사, 통신사, 의사 등 포함)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(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) 중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 한다.

## 비과세 되는 식사대 등

근로소득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대상인데,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.

매월 식사대를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라면 20만원은 비과세되고 초과차액 3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.

## 출산·보육수당

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(가족수당 포함)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적용된다.

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.

또한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된다.

## 국외근로소득 중 최소 월 100만원은 비과세

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, 국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에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의 근로제공도 포함되는데,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.